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김홍식
편집인: 김관성
인쇄인: 김성희
발행처: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12-49
우.130-875
홈페이지: andongkim.net

2007년 丁亥 선조 시향 일정표

번호	향사 선조님	요일	장소	비고
1	忠烈公(諱 方慶)之墓(중시조)	음10.9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능동	02)2244-3717(대종회) 054)855-2688(안동 재실)
2	冷平國夫人竹州朴氏之壇	음10.9	경북 안동시 풍산읍 화곡동	02)2244-3717(대종회) 054)853-0541(화곡동 재실)
3	文英公(諱 恂)之墓	음10.7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後山	031)424-5292 (재실, 김재영)
4	密直司事公(諱 七祐)之壇	11월(양) 11월(양) 7일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사자리	011-243-6443 (김영응-회장)
5	開城尹公(諱 七霖)之壇	10월(양) 10월(양) 7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010-9313-5646 (김이경-회장)
6	郡事公派 判書公(諱 愼)의 3위	음3.16	전남 강진군 작천면 토마리	011-745-0011 (김수인-회장)
7	掌令公(諱 玟)之壇, 典書公(諱 成牧)之墓	음10월 10월 1일	충남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011-409-3009 (김근성-회장)
8	副使公(諱 天順)之壇	음10.16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용리	019-386-2605 (김규장-회장)
9	文溫公(諱 九容)之壇	10월(양) 10월(양) 3일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가양리	011-361-5588 (김광우-회장)
10	安鎬公(諱 九德)之墓	음10.4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011-7252-6763 (김재환-회장)
11	都評議公(諱 九鼎)之墓	음10.4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동 행촌	011-447-4052 (김학수-회장)
12	大護軍公(諱 儒)之墓	음3.14	전남 나주군 김천면 죽촌리 상촌(목티)	010-3935-5792 (김재철-회장)
13	提學公派 合祭-文肅公(諱 永猷) 上洛伯公(諱 緝) 提學公(諱 益達) 監察公(諱 孟廉) 외 3위	음10.6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011-770-1107 (김남응-회장)
14	按廉使公派 貞簡公(諱 永煦)之壇, 領三司事公(諱 蕙)之壇, 按廉使公(諱 士廉)之墓	음10.5	충북 청원군 오창면 모정리	011-482-6624 (김영만-회장)
15	翼元公(諱 士衡)之墓	음10.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02)836-5631 010-6266-4078 (김만길-사무국장)
16	書雲觀正公派 掌令公(諱 莢)之壇, 書雲觀正公(諱 綏)之壇	음10.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광곡리	02)849-1750 (김철호-사무국장)
17	正義公(諱 哲)之壇	양력 11월 4일 일요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증평리 명성원터	낮12시 016-240-3583 (김수진-회장)

송의전 秋享大祭奉行



감사 춘교인천종친 회장, (익)재관익원공과부 회장, (익)문원동추공종회 회장, (익)만교전동추공종회 회장, (안)성희전대종회 부회장, (익)성희참의공종회 회장, (익)만길사무국장, (서)철호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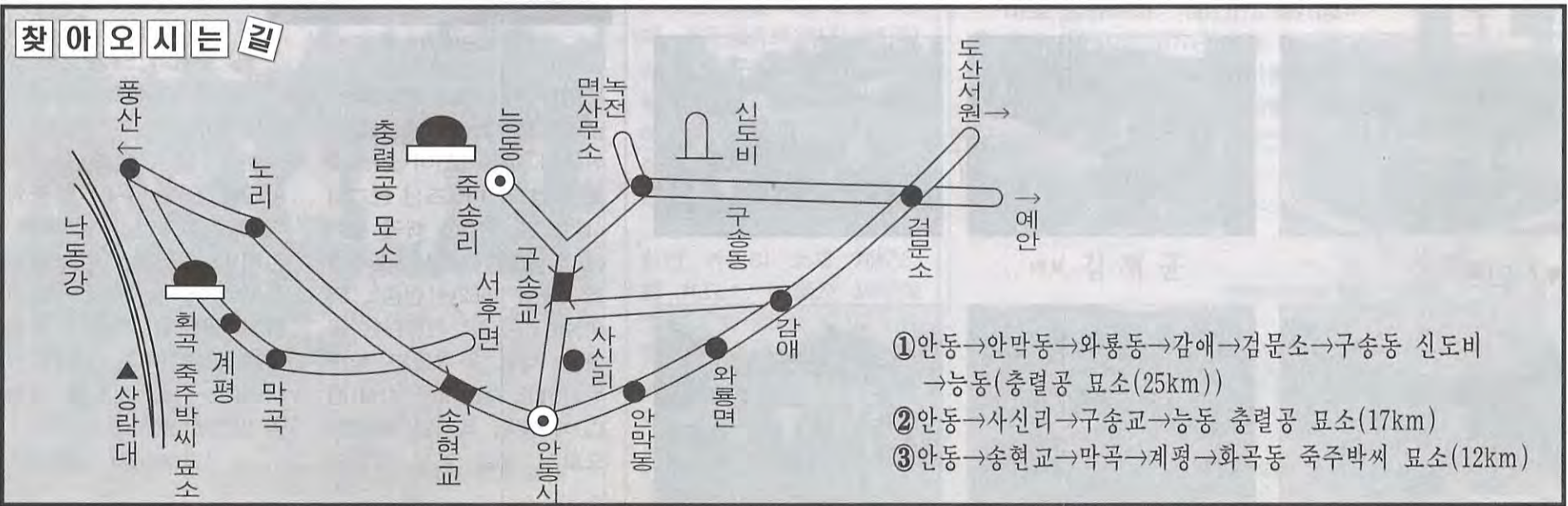
지난 10월 13일 11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에 위치한 송의전에서 16공신 문종인사와 외빈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의전 秋享대제를 봉행하였다.

(서)규면 대종회이사, (익)봉식, (익)재택 충민공 종회 총무, (익)군식, (익)태철, (전)영식, (전)종욱, (도)송수, (도)영회, (서)기영, 관묵 대종회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송의전에는 고려四王:太祖神聖皇帝(王建), 顯宗元文大王, 文宗仁孝大王, 元宗順孝大王을 비롯하여 고려 16공신이 배향되어 있다.

우리 문중에서는 전대종회부회장, 성희 종친이 헌작하였다. 이날 우리 문중에서는 송의전 보전회장인 (익)명회현종을 비롯하여 홍식대종회 회장 태욱

성금을 보내주신 종친께 감사드립니다

- ◎ 찬조금 (2007.8.29~10.25)
 - 10만원: (文) 정만 ● 5만원: (郡) 수용
 - 3만원: (翼) 용해, (文) 용만
 - 계: 210,000(원)
- ◎ 통상회비 (2007.8.29~10.25)
 - 50만원: 인천종친회 ● 5만원: (翼) 세용
 - 3만원: (密) 만회 (都) 희수, 진수 (提) 명식, 상두, 정응 (按) 재선,관회 (翼) 용구, 용회, 병국
 - 2만원: (開) 상위 (副) 수일 (提) 평응,재응 (按) 재균, 재득, 태은, 갑묵, 재하 (翼) 정준, 수인, 노수
 - 1만원: (按)재승, (文) 재희
 - 계: 1,140,000(원)



2007년도 문온공파 시제 봉행

●일시: 2007년 10월 21일
●장소: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금수단 및 가양리 선영

10월 21일 문온공파종회는 80여 명의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금수단과 가양리 선영에서 시제를 봉행하였다. 이번 시제는 지난해 정기총회의결에 따라 양력 10월 셋째 주 일요일로 변경된 후 처음 치러졌으며, 당초 기대대로 가족 단위의 참석자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문종 종인들의 참석이 늘어났다는 데 의의가 컸다. 특히 대구의 원모회(遠慕會)를 비롯해 음성, 청주, 익산, 완주 등 원거리 거주 종인들과 서울·경기지역의 가족단위 참석자들이 늘어나 향후 청소년층으로의 확산도 기대되었다. 또한 도평의공파 우회 종친을 비롯해 발용, 진회, 함용(흙페이지 관리자) 등 안사연 회원들까지 참석,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시제 봉행에 앞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광우회장의 연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이사 및 감사 선출은 차기 이사회에 위임되었다. 이 자리에서 광우 회장은 "지난 3년간 종인들의 적

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송조목족(崇祖睦族)과 파종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된 2007년도 결산안은 이의 없이 통과되었으며, 2008년도 예산 및 사업승인안은 이사회에 위임되었다. 이외에 금수단 앞쪽의 성토(盛土) 문제와 구역 정비사업 등이 토의되었다.

금수단 시제는 헌관 및 집례를 담당한 종인들이 전원 도복 차림으로 엄숙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금수단 시제는 총렬공 3세손이신 양간공(良簡公 휘 承澤)을 비롯해 상락군(上洛君 휘 鼎)과 문온공(文溫公 휘 九容) 및 외조부 문온공(文溫公 휘 閱思平) 등 4분에 대한 시향이다. 금수단 분정은 다음과 같다.

△금수단 시제 분정

- 초헌 광우 (문온공파종회장)
- 아헌 현종
- 종헌 종회(전 회장)
- 대축 태욱
- 집례 영환
- 찬인 윤만
- 봉로·봉향 광훈

- 봉작·사준 상만
- 좌집사 건만
- 우집사 덕만

12:30분경 금수단 시제가 종료된 후 참석자들은 점심을 먹고 가양리 선영으로 자리를 옮겨 부사공(휘 明理)를 모신 뒤 각 계파별로 직제학공(휘 孟獻)을 비롯한 직제학공계 선조님과 사인공(휘 季友) 시제를 봉행하였다. 직제학공계 시제는 원모회 회원을 비롯한 40여 명이 참석했다. 사인공 시제는 가족 단위로 참석자들 덕분에 예년에 비해 직계 후손들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부사공 시제 분정

- 초헌 광도(종손)
- 아헌 재만 (대구 원모회)
- 종헌 우회(도평의공파)
- 집례·독축 윤만
- 집사 진회 (안사연 회원), 호병

△사인공 시제

- 초헌 영운 (사인공계 회장)
- 아헌 창희 (현감공 종손)
- 종헌 승열
- 집례·독축 영환

「기사 제공:문온공파종회」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 기념행사와 충민사 제향 봉행

지난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는 제453주년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 기념행사가 <충무공 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회장-허용기) 주관으로 열렸다. 전 참여자 약 150여 명 중 남을 제학공파종회장을 비롯하여 천안 병천 지역에서 오신 약 25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인 영상물 상영에 이어 본행사가 이어졌는데, 허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무공의 국토수호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를 이어받자고 강조하며, 충무공 선양사업에 더욱 많은 국민과 종친 여러분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이어 10월 19일 오전 10시,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충민사>에서

는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유림에서 주관하는 충민사 추향이 성대하게 봉행되었다. 초헌관은 임각수 괴산군수, 아헌관은 안병태 충민사 원장, 종헌관은 김학응 전 문영공종중회장이 헌작하였다. 이어 임각수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충무공의 위대한 애국정신을 같이 이어받으며, 앞으로 본 제향에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행사에 우리 종친은 서울에서 대종회 관북사무총장과 멀리 포천의 재호(문)종친, 상주의 태규(익)종친을 비롯하여 청주, 오창, 진천, 괴산 등지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제학공파종회 기사 제공」

충북 괴산의 취묵당(醉默堂) 문화재 지정



<취묵당>

(휘 時敏)을 모신 충민사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괴강의 자연경관과 함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서있는 역사 깊은 명승지이다. 그동안 올바르게 보호 관리되지 못하여 안타까웠는데 작년 10월, 공문과 해설 자료를 관계 부처에 보낸 지 1년 만에 <충청북도 문화재 자료 제61호>로 지정된 것이다.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잘 보호 관리됨으로써 우리 문중의 중요한 유물이요, 명승지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 입구의 경축 현수막>

지난 9월 7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에 있는 <취묵당>(醉默堂)이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조선 중기의 시인으로 유명한 백곡 김득신(호 柏谷, 1604~1684)선조님께서 1662년(현종3, 59세)에 지은 이 취묵당은 공께서 시인 묵객들과 함께 독서하고 토론하며 시심(詩心)에 젖던 독서당(讀書堂)으로서 공의 조부 충무공

한편 같은 괴산 능촌리 마을에 있는 우리 문중의 중요 문화재인 하담(荷潭) 김시양(金時讓) 선조님의 신도비도 지난해 취묵당과 함께 문화재 지정 요청을 하여 현재 지정 예고된 상태이며, 최종 심사를 거쳐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자: 恒鏞(提)」

▼금수단



▼부사공



▼사인공



안렴사공파 系派 선조묘소 참배

안렴사공파종회에서는 年次행사로 전국에 산재해있는 先祖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그곳 종친들과 교류를 갖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행사는 안렴사공파 영만회장의 주도로 年4~5회에 걸쳐하고 있으며 이행사의 뜻은 소외된 종친들과 상견례를 겸하여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송조정신을 일깨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행사에 참여는 자발적으로 하며 소요경비는 참여자의 공동부담으로 하고 있다. 안렴사공파는 안렴사공 휘 사림의 六代孫을 中心으로 26개系派로 이루어져있다. 그 간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회 행사

지난 9월 1일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안렴사공 8代孫인 通政大夫同中樞府使 諱 榮厚묘소를 참배하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불순한 날

씨에도 그곳 종회에서 양진, 우근, 종렬(식) 태영, 도회 종친이 참석하였으며 그곳 종친들로부터 응송한 대접을 받고 귀로에 올랐다. 안렴사공파종회에서는 영만회장을 비롯하여 회운문영공종회회장 태문부회장 성회전대종회부회장, 전의운당리거주성회, 주회(안사연), 영식(안사연), 용주(안사연) 흥식 관무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제9회 행사

지난 10월 6일 영만회장을 비롯하여 재택 전안렴사공파 회장, 태문 부회장, 재홍 대종회 이사, 성회 전대종회 부회장, 주회, 용주, 관목종친이 참석하여 진전군 사석리에 위치한 一門四忠 정려(贈禮曹參議 諱 天柱 그 아드님 諱 聲秋 贈左承旨 諱 天章 그아드님 諱 聲玉)를 찾아 참배하고 안렴사공 6代孫 贈左贊成公 諱

孝鸞壬亂 전적비를 찾아 참배하였다. 이어서 진천읍 장관리에 위치한 안렴사공 3代孫進士公 諱 鄰 묘소와 4代孫將仕郎公 諱 允孫 司直公 諱 亨孫 묘소에 참배하였다. 곧바로 진천군 백석면 一松後山에 모셔져 있는 彰信校尉公 諱 孝曾묘소와 아우님이신 左贊成公 諱 孝鸞 묘소에 참배하고 오전일정을 마쳤다. 그곳에서 현대종회사이며 향전원예대표인 在均종친께서 정성껏 마련한 중식을 들면서 답소를 나누고 이어서 초평면 연달리 반탄(반여울)에 위치한 안렴사공 8代孫 折衝將軍 行龍讓衛軍 諱 龜瑞묘소와 아드님이신 안렴사공 9代孫 諱 璜묘소에 참배하고 이날 행사를 마쳤다.

그곳 현지에서 영달, 영기, 재홍, 재진종친이 마련한 음료를 들고 귀로에 올랐다. 「안렴사공 종회 제공」

少尹公 諱 淪(휘 약)의 略傳



<문영공 휘 순 묘소>

先考遺志에 따라 生卒官歷을 후세에 알리지 못하게 없애여 少尹公이라고만 통하여지고 행적을 전혀 알수가 없고 묘소도 백락촌으로만 전하고있어 평층으로 여러번 병화를 겪어 찾을곳이 전혀없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랐으니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다한것요 고려왕조에 게는 절의를 오로지한 충성을 다하였으니 충효를 다한 것이다.

※少尹公은 안렴사공 휘 사림의 五子이다. 「孤忠誌에서」

안렴사공파 少尹公종회 행사



<판교공 휘 환 묘소>

지난 10월 4일 안렴사공파 소윤공종회(회장 예묵)에서는 청주 오창지역 종친들과 안양시 관양동 소재 문영공 諱 恂(휘 순)묘소를 참배하고 여주향토사료관을 방문하였다.

중식을 들고 여주군 흥천면 귀백리 소재 判校公 諱 丸묘소, 參議公 諱 宗孫 花山君 諱 澍(휘 주)묘소를 참배하고 행사를 마쳤다. 이날 서울에서 전대종회부회장 성회, 용주, 관목사무총장등 26명이 참석하였다. 「(按)소윤공 종회 제공」

고액권 화폐에 김구선생을



새로발행될 고액권의 화폐도안에 어느인물을 넣느냐를 놓고 여러의견이 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려면 김영실선생을 넣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실학정신을 강조하기위해 다산정약용선생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이번에는 여성으로 하자며 유관순열사나 신사임당을 주장하는가하면 여성예술인으로서 황진이 허난설헌이 어떠한의견도 제시되고있다. 또한 동북공정탓인지 얼굴을 완전히 상상에 맡겨야하는 단군과 광개토태왕의 인기도 올라가고 있다고한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화폐인물로 선정되시기에 충분한 행적을남긴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번만큼은 독립지사 중에서 선정되었으면한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 임시정부 주석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범 김구선생을 비롯해 민족의 독립과 대한민국의건국에 평생을 바친 분들중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박사를 제외하면 단 한분도 화폐도안에 선정된 바 없기 때문이다. 세종대왕과 울곡선생 퇴계선생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아무

리 훌륭하다지만 17세기 이후의 인물이나 건국에 헌신한분이 한분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사가 짧아 우리처럼 위대한 인물이 많지 않은 때문인지 미국의 화폐도안에는 유난히 독립운동가들, 즉 건국의 아버지들이 많이 등장한다. 5센트의 제퍼슨 25센트의 워싱턴, 10달러의 해밀턴, 100달러의 프랭클린등 독립에 참여했던 인물이 4명이나 포진하고 있다.

우리의 독립지사들은 미국의 건국아버지들보다 훨씬 더힘난한 시대를 살면서 건국에 헌신한분들이시다. 김구선생은 정치적 패배와 비극적 죽음을 맞기는 하였으나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감동적으로 제시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나라가 남을 침략하는것을 원치아 니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김구「나의소원」중에서). 새로 발행될 고액권화폐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건국의 초석을 세운 김구선생을 모셔서 후대에도 널리 독립지사들의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길수 있으면 한다.

바로잡습니다.

- ① 종보 제95호(2007년 5월 30일) 기사 중 용장서원에 奉安된 楊若齋 金九容 先生位牌는 楊若齋 金九容先生으로 바로 잡습니다. 楊(正), 楊(誤)
- ② 종보 제96호(2007년 8월 31일) 대구 종친회 회관개관식 기사중 경실회장은 실경회남으로 바로 잡습니다.



향전원에

대표 김재균

전화 : 783-3166~7
780-8477
팩스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프린스텔 1층 1,2호)

경조화환 · 화분



통제사공 휘 영수 묘비건립

지난 10월 6일 군사공파의 소과인 통제사공(휘 영수)종중회에서는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에 위치한 통제사공묘역에서 묘비건립과 묘역

을 정비하였다. 10월 3일에는 통제사공 아드님 함양공(휘 낙풍), 손자되시는 5대조(정훈)님의 묘소를 사초하였다. 추후 종중회에서는 통제사공의

업적 발굴 및 책발간등 현양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가기로 하였다. 사진 왼쪽은 종중회 부회장 승남(회), 중앙은 통제사공 7대종손 성희, 오른쪽은 종중회장 경희. 「(군)수연 제공」



알림

「안동김씨 대종회 홈페이지에 “인천종친회” 안내기사 게재」

안동김씨 대종회 홈페이지(관리자 김항용)에 인천종친회”의 연혁, 연락처, 회칙, 역대회장 및 12대 임원명단, 주요사업내용 등 안내 기사를 게재 하였음을 알리오니 인천지역은 물론 김포, 부천, 안산, 강화등 인근지역에 거주 및 생활근거지를 두고 계시는 종친분들께서는 인천종친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고하여 주신 항용종친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컴퓨터 클릭 방법 ※

iandongkim.com(안동김씨 홈페이지)→기타소개→지역종친회→인천종친회(순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인천종친회 회장 춘교(011-266-9588)
- 총무이사 영식(011-332-0569)배상

「인천종친회 제321차

월례회의 개최」

인천종친회(회장 춘교)는 지난 8월 23일(목) 오후 7시 신포동소재 돈비어천가에서 70여명의 종친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21차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1977년 창립당시부터 매월 월례모임을 개최하여 오다 지난 6월달 월례회의에서 2개월에 한번 짝수달에 월례회의를 개최기로 함에 따라 많은 종친분들이 참석하였다. 춘교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10월 27일(토)에는 월례회의를 겸한 야유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안동의 충렬공 할아버님 향사가 양력11월 18일(음, 10월 9일) 일요일이므로 인천종친회에서는 향사일전날(17일, 토요일)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많은 종친분들이 향사에 참석하기로 결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기사제공:인천종친회」

내고장소개 [진천의 명물]

회화나무 이야기

진천읍내의 한복판인 진천전화국(현 KT진천지점)앞에 회화나무(회나무라고도 함) 한 그루가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정확한 위치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88-10번지 도로 위에 있으며 진천군 보호수 53본 가운데 1982년 11월 11일 제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아주 귀중한 나무이다.

보호수로 지정할 당시 수령이 550년, 나무높이가 17m 가슴높이둘레가 5m라고 하였으니 이 회화나무는 조선왕조 세종임금님 이후의 역사를 생생하게 알고 있을 것임은 두말 할 것이 없다. 아마 이 나무가 말을 한다면 세상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변하느라 북새통이 될 것인데 말을 못하니 다행이라 하겠다.

나무가 이름이 난 것은 다방이 없던 옛날에 모임의 약속 장소 때문이다. 농촌 총각 처녀가 은밀히 만나자고 하는 곳, 친구끼리 만나고, 물건을 전할 때, 원수지간의 한판결승 등 약속 장소로 이름난 곳이 「회나무거리·회나무」이며 진천에 산다는 분은 다 알고 있는 곳이다.

사람이 모이다보니 장사꾼이 있게 마련이고 촌에서 팔려고 나오는 계란꾸러미, 봄부터 기른 약병아리, 꿀맛 같은 성환참외와 수박, 팽이자루, 도리깨장치, 바소쿠리 집신.....등 5일장이 아니어도 이 나무 밑에는 항상 북적이게 된다. 어려서 어머님을 따라 왔을 때 참외를 한 개 사

주어 꾸구리고 앉아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지금도 그리워진다.

나무를 누가 심고 어떤 사연이 있는가 궁금하여 조선왕조실록, 상산지, 진천군지 등을 몇 일을 두고 찾아보아도 흔적이 없어 시간만 낭비하였다. 다만 보호수로 지정하게 된 사유를 「옛 진천현의 치소 입구에 위치 예부터 진천을 지키고있는 상징으로 여겨져 보호수로 지정」이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회화나무는 옛날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귀한 나무로 대접을 받고 “양반나무”라고도 불려 아무나 함부로 이 나무를 심지 않았다. 아니 심을 수도 없었다. 일반평민이 회화나무를 심었다가 양반들한테 발각이 되면 관아에 끌려가 불기 수 십대를 맞고 나와 심은 나무를 캐어 양반 집에 갔다 심어 주어야 한다.

옛날 중국의 주나라 때는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거나 벼슬이 한 단계 올라 갈 때마다 회화나무를 심었고 명예롭게 관리를 더할 때도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들어와 창덕궁의돈화문안과 덕수궁 기타 왕궁에는 지금도 고목의 회화나무가 있고, 경주시 양동마을 정승판서의 대감 집 뜰에도 역시 거목의 회화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진천읍내 회화나무(회나무)가 이곳에 있게된 연유를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수 지정 사유에서 이곳은 진천현의 치소 입구라 하였으니 관

공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진다.

1447년 세종대왕께서 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초정 약수터를 들러 한양으로 돌아가시던 중 진천에서 천하대효(天下大孝)이신 모암 김덕승(75)선생과 부친 고려말 송도판윤 김천익(95)옹 부자를 상봉하시고 모암 선생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술과 고기를 하사하시고 충청감사를 시켜 쌀 10가마를 특사 하였고, 부자(父子)를 구별하기 쉽도록 각기 의복 한벌씩도 하사 하셨는데 그 당시 이곳을 들러 가신 기념으로 심으신 것으로도 추정된다. 진천전화국이 들어서기 전에는 진천읍사무소가 있었으니 더욱 심증이 가고 있다.

회화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수(落葉闊葉數)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황버들과 함께 오대거목(五大巨木)의 하나로 빨리 자라며 수형이 아름답고 깨끗한 품격을 지니고 있어 조경수나 가로수로 적합하며 8월초에 피는 황색의 꽃은 염료와 풍치치료(風齒治療)에, 열매는 살충제나 지혈(止血), 습진치료에, 나무에 함유된 루틴(Rutin)성분은 혈관보강, 지혈, 고혈압, 뇌일혈 치료제 등 약용으로 쓰이고 꽃에는 많은 꿀이 들어있어 양봉가들이 좋아하는 쓸만한 나무이다.

옛날의 환경에서는 천년만년 명대로 살수 있었으나 도로가 포장되고 나무를 보호한답시고 콘크리트와 돌로 둘레를 쌓아 숨통이 막혀

1980년대에는 급기야 노쇠현상이 나타나고 썩은 나무통속에는 흙을 채우고 병충해가 우글거려 고사 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다행히 필자가 진천군청에 근무할 당시, 나무를 치료하는 「나무병원」이 생겨 1989년 산림청의 보조 지원을 받아 진천군에서 첫 번째로 외과수술을 하여 다 소나마 원기를 회복하고 생장 상태가 좋아져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함을 느낀다.

아무튼 이 회화나무는 진천군민의 수호목(守護木)이요 수호신(守護神)이다. 우리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에 대한 삶을 지켜보았고 개개인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회화나무님에게 간절히 바라오니,

“570여 년을 이곳에서 자랐고 앞으로 우리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고 오래오래 살아서 진천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거진천 복된 진천’이 되도록 헤아려 주시요.”하고 기원할 따름이다.

끝으로 회화나무(회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어 즐겨 심는 민속의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내년부터 새해나 음력 정월 또는 화랑축제 등 일정한 날을 택하여 ‘진천수호제(鎭川守護祭)’라도 이 나무에서 거군적으로 제를 올릴 만도 하다.

「기사제공자 : 안림사공파 회장 김영만」